

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월 일 (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실태 점검결과

주요 내용

1. 개 요

- ☐ 금융감독원은 '01.4.16~20 기간중 22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실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상시평가시스템 운용을 위한 세부기준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음

2. 점검결과 주요내용

- ☐ 각행별 평가대상기업 신용공여 규모

- 은행별 신용공여 기준 1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까지 분포

구분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은행명	수협 평화 광주	제주 전북	수출입, 조흥, 제일, 한미, 대구, 부산, 경남	기업, 농협, 한빛, 외환, 서울, 신한, 하나, 국민, 주력	산업

- ☐ 평가대상기업 선정요건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이 1.0배 미만인 업체
 - * 영업이익/이자비용
-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 업체
- 각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등으로 관리중인 업체 등

- ☐ 평가대상 기업수 : 1,187개 업체

16

☐ 평가주기 등

항 목 별	점 점 결 과
평가주기	- 매반기별로 평가계획 수립 및 연2회 평가 단 급격한 신용하락 등으로 유동성위험 직면시 수시평가
평가기준	- 모든 은행이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체제	- 상당수 은행이 여신취급 및 승인부문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춘 조직에서 신용위험 평가 - 5~9명으로 구성된 신용위험평가위원회에서 대상기업 분류
평가결과 조치	- 대상기업을 4단계*로 분류하여 처리방향 결정 * 회생가능기업(정상적인 영업을 가능한 기업,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인 기업), 정리대상기업

☐ 점점결과 미흡한 사항

-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장기연체화 우려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기준 미수립
- 외부감사결과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거절 업체 및 적자전환 업체 등을 평가대상기업에 미포함 등

→ 평가대상에 포함토록 현장지도 기실시

☐ 신용위험 평가

- 각행은 5월 이후부터 상시평가 실시

3.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의 조기 정착 및 관행화를 위한 향후 추진사항

☐ 신용위험 상시평가 이행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분기별로 신용위험 평가계획 대비 이행실적 및 처리방향 점검

- ☐ 매분기 및 수시·정기검사시 계획대비 상시평가실적 점검
- ☐ 은행간 이견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 상설협의기구 설치
 - * '01.4.26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초안 마련
- ☐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법정관리·화의업체에 대한 반기별 신용위험 평가

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신용지도팀 (전화: 3786-8391)
 금융감독원 공보실(전화 3771-5788~5791)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과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불 입)

< 상시신용위험평가 추진 경과 >

- ☐ 시장원리에 의한 상시구조조정 체제 정착을 위해 당정 협의를 통해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확정 ('01.1.31)
- ☐ '01.2.1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상시 평가시스템 운용근거 마련
 - 감독당국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용 예시기준 제시
 - '01.3월까지 각행 자율적인 운용기준 수립 지도
- ☐ '01.4.16~4.20 기간중 감독원은 22개은행을 대상으로 상시평가시스템 운용상황 점검